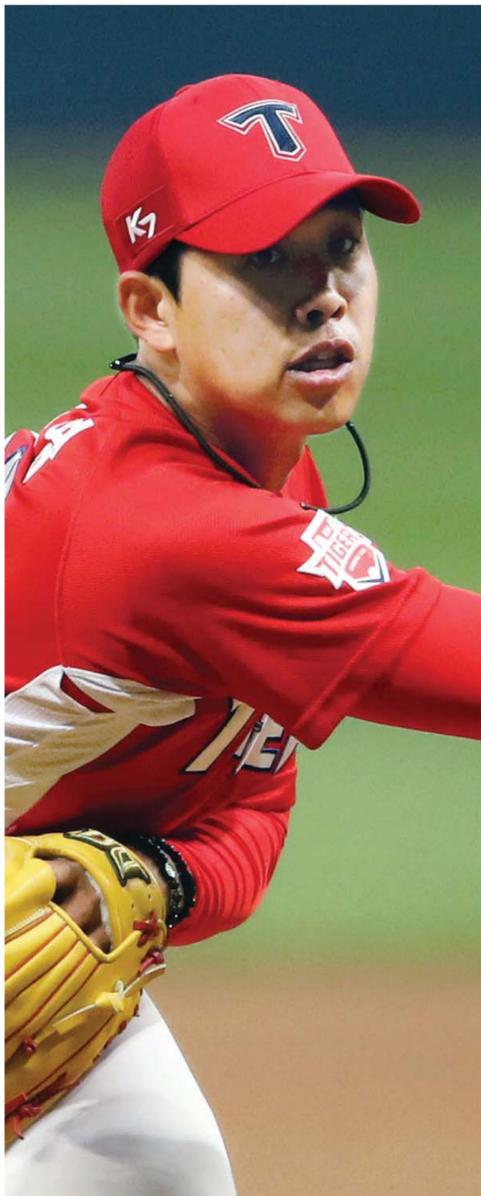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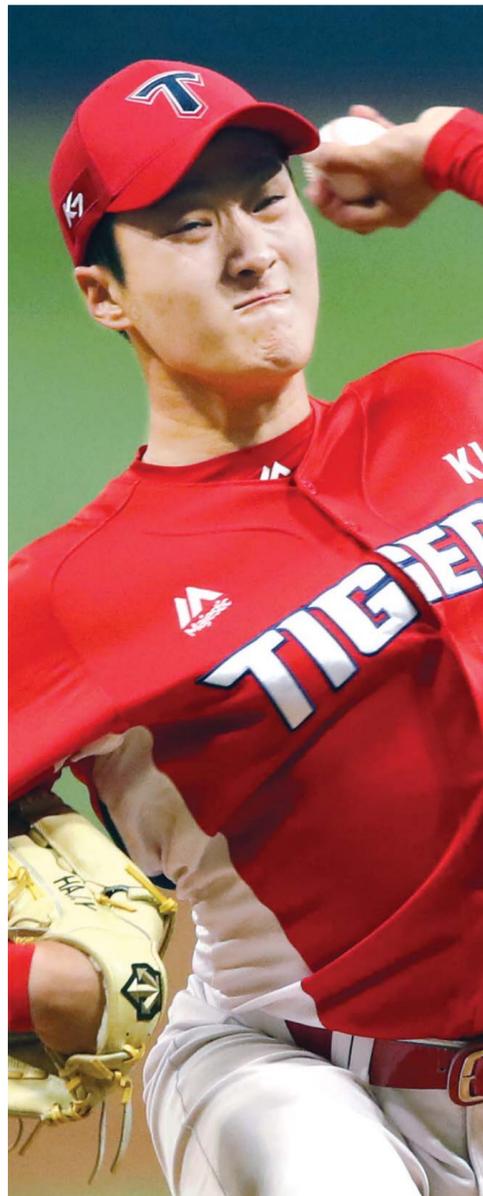
# ‘무실점’ 임기영 선발 점검 완료... KIA 시즌 밑그림 완성



임기영



김윤동



하준영

키움과 시범경기 0-2 패...김윤동 만루 위기 ‘시즌 예방주사’ 좌완 하준영, 직구·체인지업 눈길...위기관리 능력도 합격점 선수단 21·22일 마무리 훈련...23일 홈에서 LG와 개막전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 밑그림 그리기가 끝났다. KIA가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렀다. 부상 우려로 주전 야수들을 빼고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KIA는 마운드 윤곽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영이 이번 시범경기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서 최종 점검을 끝냈고, 마무리로 낙점된 김윤동은 연투를 하며 컨디션을 확인했다. 임기영은 캠프 부진을 털어내고 자신감을 더했다. 3회까지 소화한 임기영은 3이닝 3피안타 1볼

넷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회말 첫 상대 이정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임기영은 송성문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임기영은 김하성에게 좌전 안타를 내줬지만, 4번 타자 박병호를 바깥쪽 꺾 찬 직구로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1회를 넘겼다. 2회 임기영이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1·2루에 몰렸다. 하지만 김규민의 땅볼 때 1루수 황대인이 1루 베이스를 밟은 뒤 2루로 송구하면서 더블플레이가 만들어졌다. 이어 임기영은 헛스윙 삼진으로 김해성을 돌려세우고 덕아웃으로 향했다. 3회에도 임기영이 선두타자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정후를 상대로 2루수-3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주자를 지켰다. 임기영은 송성문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위기도 있었지만, 임기영은 3회까지 투구수를 31개로 묶으며 성공적으로 선발 리허설을 끝냈다. 8회에도 마운드에 눈길이 쏠렸다. 올 시즌 KIA 마무리로 역할을 하게 된 김윤동이 전날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라 연투 시험을 했다. 연속 안타로 8회를 연 김윤동이 볼넷으로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예전원의 3루수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3루 주자 김수환이 아웃되면서 원아웃. 김윤동은 김규민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투아웃까지는 만들었지만 김해성의 우측 안타로 1실점을 했다.

이후 박동원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김윤동은 1이닝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과정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1실점으로 위기를 정리하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날 좌완 하준영의 피칭도 눈에 띄었다. 0-1로 뒤진 4회말 1사 2루에서 유승철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하준영은 연속 삼진으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5회에도 등판한 하준영은 이정후에게 우전안타는 맞았지만 삼진 두 개를 보태는 등 힘 있는 직구와 예리한 체인지업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 한편 이날 경기는 0-2, KIA의 패로 끝났다.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 KIA 선수단은 21·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을 한 뒤, 23일 안방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19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왔다! 팬북

코칭스텝·주요 선수 인터뷰 베테랑 상담소 등 내용 풍성

KIA타이거즈가 2019시즌 팬북 2만부를 발간했다. 올 시즌 팬북은 ‘도전, 새로운 미래’를 컨셉으로 해 호랑이 이미지로 표지를 장식했다. 특히 강렬한 호랑이의 표정을 강조해 명예회복을 노리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팬북은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A4 사이즈의 화보로 구성됐다. 화보와 함께 다양한 테마의 인터뷰가 실렸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을 비롯해 김기태 감독의 출사표가 담겼고, 지도자로 ‘인생 2막’을 연 정성훈, 광정철 코치의 포부도 확인할 수 있다. KIA 프랜차이즈 스타 나지완과 양현종의 와이드 인터뷰와 함께 해결사 최형우가 팬들에게 전하는 편지도 실렸다. 또 팬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한 김윤동의 인터뷰와 류현진이 이범호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테랑 상담소’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3인방의 포부와 상무에서 군 복무 중인 김호영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팬북은 타이거즈의 역사가 담긴 광주기아타이거즈 야구 역사관 소개, 선수들이 추천하는 맛집, KIA 응원단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팬북은 1만원에 케이엔코리아 타이거즈 온라인숍(www.tigersshop.kr)에서 판매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케이엔코리아(02-2265-0794)로 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더블 플레이 때 고의 슬라이딩 주자·타자 아웃

KBO 달라지는 규칙...비디오 판독 심판 제량으로 1회 추가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시범 경기가 20일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3일 시작되는 ‘진짜 무대’를 앞두고 올 시즌 달라지는 KBO리그의 주요 사항들을 알아본다. <더블 플레이 시 슬라이딩 규정 신설>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더블플레이 시 슬라이딩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자가 정당한 슬라이딩 방식이 아닌 야수에게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해당 주자의 방해가 선언된다. 이럴 경우 주자와 타자 모두 아웃된다. 주자의 고의성과 정당한 슬라이딩 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10개 구단은 지난 12월 감독자 회의를 시작으로 KBO 심판위원회와 지속해서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 후드 플레이는 사라진다. 그동안 수비수가 2루에서 더블 플레이를 시도할 때 주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를 터치하지 않아도 아웃이 인정됐지만, 앞으로 야수들은 더블플레이 처리를 위해 베이스를 정확하게 밟아야 한다. <비디오 판독 규정 변화> 비디오 판독은 지난해보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해진다. KBO리그가 사용하는 9개 구장의 3루와 홈플레이트에 각각 1대씩 카메라 2대가 추가 배치된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경기당 1회에 한하여 심판 재량의 비디오 판독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더블플레이 시 슬라이딩 규정이 비디오 판독 대상 플

에 추가됐다. <경기 스피드업 규정 변경>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규칙과 동일하게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보완했다. 신설된 항목은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또 경기 중 2개까지 가능했던 투수의 세 공 교환 개수를 3개로 늘렸다. <선수 복지 관련 규정 보완> 선수 복지를 위한 보안 사항도 있다. 현역 선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 사망 및 배우자의사망, 자녀 출생을 사유로 최대 5일의 경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조 휴가를 신청한 선수는 해당기간 중 등록이 말소되지만 이 기간을 등록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말소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다시 현역선수로 등록 가능하다. 올스타전 휴식기도 4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다저스 개막전 선발 나서나

커쇼 이어 불리 출전 무산...리치 힐과 2파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2선발 워커 블러드 개막전 출전이 무산됐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시범경기가 끝난 뒤 블러가 개막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8년 연속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책임진 커쇼는 지난날 왼쪽 어깨 염증 진단을 받아 스프링캠프 훈련과 시범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블러는 지난해 많은 이닝을 소화해 관리 차원에서 20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첫 시범경기 등판에 나선다. 커쇼에 이어 블러가 후보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저스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개

막전 선발이 마운드에 빠지는 상황에 부닥쳤다. 현재 개막전 선발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리치 힐과 류현진이다. 힐과 류현진은 나란히 시범경기에서 4차레 등판했다. 힐은 11이닝 동안 4실점해 평균자책점 3.27, 류현진이 10이닝을 던져 2실점으로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일정상으로는 힐이 가장 유력하다. 힐은 지난 18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4.2이닝을 던져 3실점했다. 시범경기에 한 차례 더 등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29일 개막전까지 등판 간격이 딱 맞아떨어진다. 류현진은 22일 밀워키전에서 5~6이닝을 던질 계획이다. 29일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다면 6일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